



논산 육군 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법회 장면. 이날 낙성법회에는 5000여명이 운집해 한국불교종중을 발원했다.

10만 군인 '마음 훈련소' 문열다

5월 2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낙성...3500명 수용 최대 법당

“불심! 불심! 불심! 충성! 충성! 충성! 이날의 환희를 한국불교 중흥의 원동력으로!”

논산 연무대 넓은 들판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포교의 미래, 젊은 불자 양성소,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자광)는 5월 2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2009년 11월 27일 불사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2년 6개월 만의 쾌거다.

총 공사비용 126억여 원의 대작불사인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불자들의 십시일반 힘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날 참석한 사부 대중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3500여 명을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법당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낙성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불자들로 넘쳤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좌석이 가득차자 계단에 앉아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광주 신광사에서 온 김복심(성심월·84) 씨는 “한 푼 두푼 모은 돈으로 이렇게 훌륭한 법당이 완성되고 또 이곳 도량서 젊은 장병들이 수계 받고 신심 쌓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즐거워 했다.

의성 지장사에서 온 김명화(51) 씨는 “오늘 호국 연무사에 처음 왔는데 이렇게 장엄한지 몰랐다”며 “불교의 미래를 위해 불사 모연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축법당 한편에는 수천 명의 이름을 빼곡히 적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연무사 첫 수계법회에 맞춰 동판에 새겨 영구 보존될 동참자 명단이다. 외부에 마련된 연등 및 원불 불사 모연 부스에는 동참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낙성법회에서 지승 스님은 “호국 연무사에서 범을

을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채워갈 수만 청년 불자들을 생각하면 한국불교의 희망이 바로 군불교에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며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고취된 신심을 갖고 전역 후에도 사회에 나가 다시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있게 된다면 우리 한국불교의 미래를 대단히 밝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낙성법회 축사에서 부총장 불사금 모연에 마음을 내달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밀운 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은 “불사금이

5월 2일 낙성법회 5000여 명 운집

공사비 126억원 십시일반 모연

아직도 25여 억원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여기 모인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을 조금씩 보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의장 원혜 스님(금산사 주지)도 “낙성이 끝이 아닌 만큼 불자들의 지속적인 불사 참여가 필요하다. 모자란 불사금을 모으기 위해 전국 교구본사에서도 적극 동참”고 힘을 보탤다.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은 “불교는 국가관 확립과 장병 정신전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법당 신축으로 군포교 새장이 열리고 호국신앙 가치가 확산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축사와 함께 참석 대중에게 힘찬 거수경례를 올려 큰 박수를 받았다.

현장의 군승들과 병사들은 신축법당 완공으로 인한 군포교 활성화에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고태호 법사는 “대부분 종교가 없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처음 불교를 접하는 곳으로 도량의 장엄함도 중요하기에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의미를 더한다. 최신식 법당이 젊은 장병들에게 어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배희열 법사는 “교회·성당보다 큰 시설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임장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지금의 모인 불심이 초심이 돼 군포교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회에 참석한 김민구 병장은 “훈련소 시절 목욕탕 의자를 놓고 법회에 참석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최신식 건물에서 법회를 볼 후배장병들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낙성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회 부의장 밀운 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前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불광사 등 각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포함한 종단 주요 스님들과 안국선원 신도 등 5000여 대중이 운집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과 헌관 제막식을 시작으로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 경과보고, 유공자 포상,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인사말, 총무원장 자승 스님 치사, 원로의회 부의장 밀운 스님 격려사와 각계 축사 및 축하 영상물 등이 진행됐다. 식전행사로는 조계종 어장 동주 스님의 집전 하에 삼존불 점안 및 부장식이 진행됐다.

낙성법회는 수불 스님과 영진 스님(중정사) 등 공로자 표창에 이어 김의정 중앙신도회장(불사추진위원장)의 ‘불심’, ‘충성’ 삼창과 영상 축하 메시지, 한 마음선원 등 불교 각계의 불사금 전달식과 함께 막을 내렸다.

논산 호국 연무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살린다는 마음에 화주 꺼려지지 않았다”

신축법당 산파 역할한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불교계 행사마다 가서 화주를 청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60만 장병이 있기에, 또 400여 법당을 누비는 법사들이 있기에 마음을 내고 또 냈습니다.”

매년 10만 수계불자 장병을 배출할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진행된 총 126억 원의 대작불사가 완료되기까지 수많은 불자들의 탐과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그 많은 노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던 데는 항상 낮은 자세로 도움을 청한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의 역할이 컸다. 수십년 군포교 현장에서 일한 군법사 출신으로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스님이기에 전교를 누비며 화주를 권할 수 있었던 지도 모른다.

자광 스님은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법회에서 감격에 겨운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자광 스님은 “절 행사 때마다 화주를 권하는 것이 폐를 끼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큰 스님들의 격려가 있었다. 또 현장의 법사들과 장병들 생각에 저어줘야 없었다”며 “하루하루 늘어나는 불사금을 볼 때면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불사성취를 위해 나갈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이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불사에 동참한 많은 불자들의 사연을 일일이 전했다.



스님은 “28년 전 결혼식 때 받은 예물을 그대로 보내준 분과 아이 돌반지 상자를 보내준 분, 또 불편한 몸으로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 그 수당을 모아 보내준 분, 요양원에서 용돈을 모아 보내준 분 등 불사 동참 때 마다 이 불사는

만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불사 초기 건설 시행업체를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과 매일 이자만 54만원 이상 나오는 미납금 25억원 문제 등 스님의 교구장 임기 전 시작된 불사로 스님의 교구장 생활은 험난 그 자체였다. 주변 이들은 스님이 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고 귀띔했다. 스님은 지난 1월 심장 수술을 받기도 했다.

“모두가 불자 한분 한분의 관심과 정성으로 이뤄졌기에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법당에서 신명나게 불법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노덕현 기자

호국 연무사 신축법당 가보니



호국연무사 신축법당 전경. 불사금 25억여원이 모자란 상황이다.

극장식 좌석 구조, 대형 스크린 압권 어려진 시설 완비해 무더위 법회 거든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은 대지 4만 6000㎡에 연면적 4680㎡(1415평) 규모로, 법당 3500명, 교육관 1500명 등 최대 5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법당에 들어서면 먼저 중앙에 자리한 4m 높이의 주불과 보현 및 문수보살의 형시불이 눈에 띈다. 삼존불 뒤와 양 옆으로는 원불 1560기가 모여져 있다. 군종교구는 향후 비전상과 자모관 세움보살, 포대화사 등을 장엄할 예정이다.

법당 입구는 3군데로 성인남자 10명이 나란히 들어갈 정도로 넓었다. 교육관으로 사용될 전 법당과 달리 극장식 부채꼴 구조로 구성되어있는 점이 특징이다. 고층건물에 사용되는 H빔기법으로 지어져 큰 규모에도 법당까지 기동으로 인한 시야가림이 없다.

이밖에 스님 대기실과 합창단실, 공연준비실을

무대 양측에 배치했다. 또 군장병들이 법회를 보고 공연을 즐기는 동안 이들을 인솔한 분대장들이 설 수 있는 휴게실과 의료실 등을 갖췄다.

젊은 세대들이 찾는 법당인 만큼 문화공연 등이 가능하도록 대형 스크린 2기와 초대형 스피커, 신디사이저 등 첨단 시설을 구비했다. 호국연무사에서는 이런 시설을 바탕으로 주 1회 정기법회, 큰스님 초청법회, 수요법회 및 재일 법회가 진행되며 월 1회 문화 공연 행사도 진행돼 장병들의 신심을 북돋을 예정이다.

노덕현기자



분대장 휴게실서 TV를 보는 훈련소 장병들



한국불교 지성화·대중화·생활화

목동근절 법안정사는 한·불 수교 백주년을 기념하여 설치된 파리공원을 앞에 두고, 반만년의 역사와 배달 한겨레의 활맥을 안고 영감을 흐를 한강을 뒤로하여 시대의 민족 진운을 밝히기 위해 법문을 연 도량이다.



백용성 조사연영

희주 김효경
주지 윤선효

- 대중일등 -

☞대한불교조계종대각회

목동근절 법안정사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2호
Tel. (02)2646-4975,
(02)2653-4888

황성 大覺正寺
강원도 황성군 감천면 병지방리 211번지
Tel. (033)433-3754,
(033)433-0992

- 금강법회: 매월 음력 1일~3일기도 오전 10시(금강경 독송)
- 인등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원각경 독송)
- 지장재일: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아미타경 독송)
- 관음재일: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관음경 독송)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부부법회: 매월 첫째(토) 오후 7시
- 청년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다라니기도: 매월 넷째 월요일 오후 5시~10시